

“주가 부진 K팝 올해 반등 가능성 높아”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가치 재평가 가능성 크다”
일본 팬층 증가... 하이브·JYP·SM 점유율 2배 될 것

올해 K팝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했지만 팬층 확대 추세를 감안할 때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K팝 분야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관련 기업들은 수년째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가치 재평가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K팝 관련 ‘빅 4’기업 주가는 연초 이후 모두 하락했다.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37% 이상 급락해 하락세를 주도했고, YG 엔터테인먼트는 17% 가까이 하락했다.

방탄소년단이 속해있는 하이브는 약 4.5%, SM엔터테인먼트는 17% 넘게 떨어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특히 소속 걸그룹 에스파 리더 카리나의 연에 스캔들이 터지면서 주가가 휘청거

렸다. 지난 2월 스캔들 당시 주가는 5일 연속 하락하며 2022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갔다. 특히 중국 팬들이 에스파 앨범을 보이코트하겠다는 움직임이 SM 시가총액은 5000만 달러가량 사라졌다.

골드만삭스는 이들 4개 사 모두 2023년에 매출과 순이익이 성장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골드만은 올해 주가 하락은 시장이 K팝 가수들의 음반 판매량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나온 현상으로, 이는 팬층이나 성장세를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지표라고 봤다. 한 사람이 앨범 여러 장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많다고 팬층이 두껍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에 오프라인 콘서트 입장객 수가 K팝의 성장성을 나타내주는 우수한 지표라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했다.



걸그룹 에스파.

또 일본 시장에서 K팝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봤다.

현재 일본은 K팝의 가장 큰 해외시장으로, 하이브, SM, JYP가 일본 내 라이브 음악 시장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최고의 연예기획사 조니 앤 어소시에이츠가 주요 스캔들에 휘말려 일본 소비자들이 K팝 아티스트들에게 더 호의적으로 돌아선 점

도 K팝 기업에는 기회가 된다.

골드만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일본의 K팝 콘서트 관객이 매년 24%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이브와 JYP, SM의 점유율도 14%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K팝 인기는 SM이 최근 내놓은 일본 보이그룹 NCT 위시와 JYP가 곧 선보일 보이그룹 NEXZ가 이끌 것이라고 골드만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BTS 슈가 콘서트 실황 영화 최고 흥행

전 세계 수익 140억원 돌파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솔로 콘서트 영화 ‘어거스트 D 투어 D-데이 더 무비’(August D TOUR D-DAY THE MOVIE)가 올해 전 세계 공연 실황 영화 가운데 최고 수익을 올린 작품에 등극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배급사 트라팔가 릴리징(Trafalgar Releasing)에 따르면 이달 10~14일 상영된 이 영화는 전 세계에서 1016만달러(약 141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트라팔가 릴리징은 “이는 올해 미국 및 전 세계 콘서트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작품이자 K팝 솔로 아티스트 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어거스트 D 투어 D-데이 더 무비’는 해당 기간 1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총 3500개 이상의 영화관에서 관객을 만났다.

북미 지역에서는 지난 10일 784개 영화관에서 96만1000달러(약 13억원), 스크린당 평균 1264달러(약 175만원)의 수익을 올려 박스오피스 2위로 기록됐다. 북미 누적 수익 총액은 230만달러(약 32억원)에 이르렀다.

슈가의 콘서트 영화가 흥행하면서 미국에서는 21일까지 상영 기간을 연장했다.

연합뉴스

‘원더풀 월드’ 사람의 마음에 집중

김지은 작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드라마 아니었죠”

“작가는 작품을 쓸 때 시청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청률이라는 숫자보다 오롯이 사람의 마음에 더 집중해보자고 생각하고 쓴 작품이 ‘원더풀 월드’예요.”

최근 종영한 MBC 드라마 ‘원더풀 월드’를 집필한 김지은 작가는 17일 서면 인터뷰에서 “이 말은 정말로 꼭 하고 싶었다”며 시청자들에게 이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드라마를 보느라 감정 소모가 크셨을 시청자님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더풀 월드’는 교수이자 유명 작가였던 은수현(김남주 분)이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다.

은수현은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하기로 선택하고, 뺑소니사건의 가해자로 법정에서 남자를 직접 처단한다.

피고인의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서 서게 된 은수현은 당당하다. 그는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며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히고, 보복살인 혐의로 결국 징역 7년을 선고 받는다.

김 작가는 ‘우리 인생길의 한 가운데에서 나는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었다’는 단테의 신곡 첫 구절에서 은수현이라는 인물을 그려냈다고 밝혔다.



MBC 드라마 ‘원더풀 월드’.

그는 “계속 걸어가고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멈출 수도 없다고 느끼는 화자의 모습이 마치 꼭 저 자신 같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또 다른 인생길에서 숲속을 헤매고 있을 누군가와 함께 걸어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었고, 저 역시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은수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남주는 처절한 모성애부터, 삶이 무너진 듯한 절망감, 배신감,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투지까지 섬세하게 묘사해내며 깊은 감정 연기로 몰입감을 끌어올렸다.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에 코믹한 연기를 곁들인 드라마들이 주로 인기를 끄는 안방극장에서 ‘원더풀 월드’는 그 반대를 택했다. 극적인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감정선에 초점을 맞춰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김 작가의 우려와는 다르게 첫회 시청률 5.3%로 출발한 ‘원더풀 월드’는 서서히 시청률 상승세를 그리기 시작했고, 치열한 주말 시청률 경쟁 속에 최고 11.4%(9회·1회·13회)를 기록하며 두 자릿수 시청률을 넘겼다.

연합뉴스

배우 김새론 2년 만에 연기 복귀

연극 ‘동치미’ 출연

유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김새론이 연극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공연제작사 극단 글로벌극장은 5월 3~12일 서울 CTS아트홀에서 열리는 연극 ‘동치미’에 김새론 등이 출연한다고 17일 밝혔다.

연극 ‘동치미’는 노부부의 애절한 사랑과 세 남매의 우애를 다룬 작품으로 2009년 초연했다. 김새론은 배우 안수현과 함께 작은 딸 정연 역으로 출연한다.

배우 김진태와 이기석은 아버지 김만복을 연기하며, 김계선과 김기령이 어머니 정이분을 연기한다. 제작진으로는 김용음이 대본과



연극 ‘동치미’ 출연하는 김새론(맨 오른쪽).

연출을 맡았다. 김새론이 유주운전 사고 이후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2년 만이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1:05 중계방송 제44회 장애인 날 기념식 11: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두근두근 버킷리스트 7:00 TV 유치원 7:30 생생정보 스페셜 8: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20 피도 눈물도 없이(재) 10:00 KBS 아침 뉴스타임 10:20 인강극장 스페셜 11:00 사정남 귀는 당나라 귀(재) 12:30 스튜디오 K 스페셜 13:10 피도 눈물도 없이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인영(재) 15:30 TV 유치원(재) 16:00 누가누가 잘하나 내 일을 위한 시간 17:00 거침없이 지킴! 버디프렌즈 17:15 다이노 파워즈 3 17:30 동천애들 따라잡기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세 번째 결혼(재) 8:30 TV 전국시대 9:25 우리 지역에 살아요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리 동아리 스페셜 11:15 글로벌 건강 비법 최강비서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로이점 9:55 SBS 10 뉴스 10: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30 고행이 보인다 12:00 12 MBC 뉴스 12:25 원더풀 월드(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7:30 케리와 친구들 스페셜(재) 17:50 SBS 오뉴스 17:35 JIBS 저녁 뉴스 17:50 한국사 대모험	8:20 최고!다 후기심택지 9:20 인강이 되자! 12:10 견종탐구 - 집 13:00 EBS 평생학교 15:15 클래식 e 16:10 동동명 유치원 16:50 도라미 프렌즈 쇼츠 17:40 레인보우 버블렌 19:50 인강과 바다 9:30 나혼자 여행지도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30 청석현명 13:00 제주국제관광제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7:10 KCTV 시청자세상 18:00 로컬브랜드를 말하다 19:30 낭만의 고향 19:30 KCTV 종합뉴스 20:00 제주국제관광제 21:00 KCTV 종합뉴스 9:00 김현정의 뉴스쇼 7:00 그대 장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시사메거진 제주 17:30 자녀종합뉴스 18:00 한문선누 20:00 CBS 뉴스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5 TBN 제주메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 064)740-7331 / MBC 064)740-2432 / JIBS 064)740-7800 / KCTV 064)741-7723 / 제주CBS 064)748-7400 / TBN 제주교양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8일

김홍삼 지단(해트)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곡동 교수(010-5233-6136)

	36년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가 보약. 48년 항상 성실한 마음을 주위에서 인정해준다. 내일에 전념하라. 60년 추진하는 일이 풀리고 의욕 고취. 직장인은 대인관계에 중점. 72년 승진. 취업 또는 상을 받을 일이 따른다. 창업, 개업은 심사숙고. 84년 동료와 융화를 하거나 협조할 일이 생긴다.
	42년 문서 매대 이동에 김, 여행(출장)할 일이 생긴다. 54년 뜻대로 일의 성사가 잘 풀리지 않는다. 66년 대립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양보와 배려. 78년 자금거래를 삼가라. 보증문제 발생. 이상관계에 불협화음. 90년 모임이 있거나 활동이 왕성할 날. 돈 지출이 생긴다.
	43년 물건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5년 바쁘게 활동하지만 결과는 생각보다 적어서 속상하다. 67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거나 정리하는 하루. 내부 일에 치중하라. 79년 친구와 불화가 오니 언행을 조심하라. 91년 다툼엔 오래가니, 즉시 화해하거나 오래 없도록 자리를 피하라.
	44년 물건을 분실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56년 적절한 규모있는 자금 지출을 하라. 과소비에 스트레스 우려. 68년 도전외식과 의욕이 강한 만큼 치밀한 계획과 성실한 실천력이 필요. 80년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분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아라. 92년 노력 끝에 결실이 맺으니 일이 진전이 있고 희망도 있다.
	45년 아이를 위한 기도나 상담도 때론 필요하다. 57년 내 마음과 욕심이 허전함을 고독으로 느낀다. 여행을 떠나라. 69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 미룬 자결혼 주선 적극 임하라. 81년 전문성에 도전하라. 직장인은 기쁨이 있다. 93년 친정을 생활화 하라. 멀어진 다음에 후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46년 몸이 이상이 오거나 구실수 조심해야 한다. 58년 후식을 취하고자 해도 내일이 산적해 있다. 집안일에 치중하라. 70년 여행 또는 외출을 하거나 손님이 방문하여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미팅이 주선되거나 친구를 축하하려 가게 된다. 패션에 초점을 맞춰라. 94년 재물의 지출이 생기거나 회 복된다.
	47년 금방 돌아갈라는 말과 같이 여유가 필요. 59년 직장이나 부하직원에게 의한 고민, 자식의 문제로 걱정을 한다. 71년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고 집무할 일이 생긴다. 친구간에 경쟁은 금물. 83년 하는 일에 자질을 갖고 더 노력해 전문가로 발돋움할 것. 96년 결실을 거둬들인다. 내집에 할 일이 많아진다.